

第12回 韓国電子展 決算

本회가 주최한 第12回 韓国電子展覽회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 일동안 5億弗 이상의 商談実績을 올리며 마쳤다.

国内 160個 業体和 美国, 日本 등 117個国에서 69業体, 총 229個 업체가 出品하여, 390個 品目에 63,370여점이 展示된 이번 展示회는 그 어느때보다 質과 量으로 수준높은 展示会였다.

展示 기간동안의 集計에 의하면 그동안 美国, 西独, 日本, 캐나다를 비롯 42個国에서 3,210여명의 바이어들이 찾아와 활발한 商談을 벌여 例年보다 많은 실적을 올렸다. 특히 금년에는 例年에 비해 団体購買团이 대거 来韓(美国, 200名, 스웨덴 40名, 홍콩 20名, 노르웨이 20名, 인도 20名)하여 韓国電子展에 外國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

한편 印度의 인솔 책임자인 印度電子部品製造 協會長인 Mr, Om Wadhwa氏는 우리나라의 高度화된 電子産業에 대하여 놀라면서 合作投資 및 技術 제휴를 제의해 왔다.

올 전시회의 品目別 商談実績을 보면 TV(흑백 및 컬러)가 2억 1,300만弗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앰프類로 1억 5백만弗, 녹음기가 6천 4백만弗, 라디오 및 카스테레오가 4천 300만弗을 기록했다.

제12회 韓国電子展의 특징과 내용

□ 특 징

- 産業의 核心 半導体 및 Computer 開發 深化 (Business Computer 開發)
- 家電製品의 마이크로프로세스 活用
- 音響(Audio) 및 映像(Video) 製品의 機能 多樣化
- 製品의 小形化 및 高價商品에 主力
- 部品の 原料 및 素材開發로 国産化率 向上
- 性能이 우수한 国内外 電子交換機 展示

■ 展示現況

〈参加業体〉

区 分	業体数	国家別·参加現況	
国内館	産業用機器館	40	韓國: 160 캐나다: 2 日本: 36 스위스: 1 美国: 19 싱가포르: 2 홍콩: 3 오스트리아: 2 台湾: 1 서독: 1 덴마크: 1 리히텐슈타인: 1
	家庭用機器館	42	
	音響機器館	12	
	電子部品館	66	
	小計	160	
国内館	69		

(※ 12個国 229個社)

〈展示出品物 現況〉

区 分	種数	点数	特 色
国内館	産業用機器	72	○家電製品의 마이크로프로세스 活用 ○Audio 및 Video 製品의 機能多樣化 ○半導体 및 컴퓨터 開發 深化 ○製品의 小形化 및 高價商品에 主力 ○部品の 素材開發로 国産化率 向上
	家庭用機器	85	
	音響機器	20	
	電子部品	78	
	小計	255	
外国製品	135	13,000	

(※ 展示出品物: 390種 63,370点)

□ 내 용

1) 産業用 電子

- (1) 入出力 및 本体(C.P.U)가 完成된 미니 컴퓨터
- (2) 電送速度가 보다 빠른(90抄-60抄)팩시밀리
- (3) 半徑 4.6m의 人工衛星에서 直接受信할 수 있는 Parabolic TV Antena
- (4) 半徑 10km까지 難視聽 地域을 完全 해소할 수

있는 TV 中繼裝置

- (5) Microprocessor 를 利用한 Digital Counter
- (6) 国英文 同時 使用이 可能한 Word Processor

2) 家電製品

- (1) 디스크를 사용하여 映像信號를 TV에 나오도록 하는 V. D. P (Video Disc Player)
- (2) All 리모트 콘트롤이 可能한 Slim化 (50mm) 된 Hi-Fi
- (3) Microprocessor 를 이용한 Digital Tuning System (청취하는 주파수와 放送局 表示)
- (4) 音声合成技術을 이용하여 말로 Channel과 ON, OFF를 調整할 수 있는 TV.

3) 部 品

- (1) 세계에서 4 번째로 開發한 Video Tape
- (2) 0.02mm (머리카락의 1/3) 정도 薄매용 (영하 180℃) 마크네트 와이어
- (3) 일본의 1/3 정도 크기의 전자레인지용 마크네트론
- (4) 50W 人力의 Dorne 스피커



(5) Walkman에 사용할 수 있는 Slim, 포리바리콘 등이다.

展示기간을 통해 海外과 国内의 매스컴이 多角度로 취재를 해 갔으며, 參觀인원도 135,000명으로 豐성한 국제적인 잔치였다. 매년 개최되는 韓國電子展은 더욱 發展하여 머지않아 名실상부한 世界的인 電子展으로 만드는 일이 모든 국내 業体의 至上 目標일 것이다.

